

통합의학부터 천관산 역사까지 볼거리 풍성 '가을 장흥'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천관산 역사제·회령포문화축제 등 볼거리·즐거거리 풍성

장흥군이 가을철 연이은 행사로 풍성한 볼거리를 예고하고 나섰다.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장흥군 안양면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는 '2022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열린다.

다양한 통합의학적 진료체험을 마련한 올해 행사는 '사람중심 통합의학, 장흥에서 세상으로'란 주제로 진행된다.

박람회장은 미래 에어러블 주제관, 통합의학관, 대체의학관, 통합의료병원관, 의료산업관, 특산물 판매관 등으로 구성됐다.

군은 특별 주제 전시와 관람객 편의를 강조한 체험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제관에서는 대한민국 10대 질병의 정의

와 증상,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통합의학적 치료 방법을 소개한다.

통합의학관과 보완대체의학관에는 국내외 다양한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부스에서 통합의학 진료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회진항 일대에서 '2022 회령포문화축제'가 개최된다.

올해 회령포문화축제는 '12척의 기적, 역사속으로 가는 시간 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축제에는 삼도수군절도사 임성식 퍼레이드, 회령포 가요제, 노젓기 마을대항, 가수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회령포는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통제사 교지를 받고 장흥으로 내려와 회령포 결의



가진 역사적 장소이다.

호남 5대 명산의 하나인 천관산에는 은빛 갈대가 일렁이며 등산객들을 반기고 있다.

천관산 정상 130만㎡ 능선 일대를 은빛으로 물들인 역사는 다도해의 풍경과 천관산



기암괴석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최고의 장관을 이룬다.

천관산에서는 가시거리가 좋은 날 다도해의 시원한 풍경은 물론 멀리 제주도 한라산까지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하다.

김성 장흥군수는 "볼거리, 즐거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정남진 장흥군에서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끼고,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완도군, 촘촘한 복지 실현 '위기 가구 발굴·지원 온힘'

6억9천만 원 투입...각종 지원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완도군은 타 지역에서 생활고 등으로 인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은 물론 총 6억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그동안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

소에 노력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민생 취약계층이 발생하고 있어 군에서는 국가, 지자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한 복지 위기 가구를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집중 발굴할 방침이다.

이에 강성운 부군수를 단장으로 '위기 가구 집중 발굴 추진단'을 구성하고, 공무원,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위원, 복지 기동대 등 267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의료 위기, 갑작스런 소득 상실, 월세 미납, 공과금(단전, 단수, 건보료 등) 장기 체납자 등 위기 정보 통보자(286명)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전수 조사를 통해 제도권 밖의 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신속한 상담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복지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구에는 공격 지원으로 긴급 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에너지 바우처 등 공격 급여 신청을 안내한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고국 그리울땐 맛과 멋의 고향, 해남으로 오세요"

명현관 해남군수 남도장터US 오픈식...전남관광설명회 참석 방미일정 성료

미국 방문중인 명현관 해남군수가 해남의 맛과 멋을 현지인들에게 알리는 폭넓은 행보로 방미 일정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명 군수는 현지 시각 23일 미국 LA에서 열린 남도장터 US 온라인 쇼룸 오픈식에 참석해 LA현지 교민 및 기업인들과 만남을 가졌다.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룸 남도장터는 전남 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미국 시장을 겨냥한 온라인 쇼룸을 개관, 23일 오픈식을 개최했다. 남도장터 US물에는 전남도내 66개사 182개 제품이 입점해 있으며, 해남군에서는 해남고구마식품(주)의 고구마말랭이와 땅끝햇살찬영농의 아이스크림고구마 제품이

입점했다.

오픈식은 김영록 도지사와 현지 운영사인 선장 크리에이티브대표, 한국에서 방미한 명현관 해남군수와 신우철 완도군수 등을 비롯해 현지 향우회 및 기업인, 교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은 한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전남 농수산식품의 수출확대와 남도장터 US의 성장을 위해 한미 양국의 관계자들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의지를 모았다.

또한 LA한인타운에서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기념하는 전남관광설명회가 열렸다.

해남=기동취재본부

강진읍, 경로당 보조금 회계교육 및 위생교육 실시

강진읍은 지난 21일, 강진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각 마을경로당 회계도우미, 급식도우미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경로당 하반기 회계교육 및 안전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마을경로당에 지원되는 보조금(운영비, 난방비, 부식비)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 정산 방법을 설명하고 보조금 집행 모범사례 소개, 잘못된 집행사례 바로 잡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 경로당에서 식사 시 개인 식기 사용하기, 행주, 도마 등 청결 유지하기, 남은 음식은 투명하고 뚜껑이 있는 그릇에 보관하기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청결 교육까지 함께 진행됐다.

경로당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내구연한을 점검하고 소화기 관리법 안내와 여전히 어르



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19 예방수칙도 전달했다.

김영일 강진읍장은 "오늘 교육이 경로당 운영에 있어 투명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더 나아가 어르신들의 성취감 향상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 가을철 유행성출혈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진도군이 가을철 야외활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진드기와 쥐 등의 설치류를 통해 발생하는 유행성출혈열(신증후군출혈열)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유행성출혈열(신증후군출혈열)은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쥐의 타액이나 배설물이 피부 상처나 호흡기를 통해 감염돼, 2~3주 내 발열, 출혈소견, 신부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진드기를 통해 감염되는 쯤쯤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4~11월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려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을 보이는 감염병이다.

특히 논과 밭 등에서 쉽게 감염이 될 수 있어, 야외활동이 잦은 고위험군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진도=조상용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